

“부름의 상을 위하여”

빌립보서 3:12-16

찬양 :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1. 바울은 12절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으로 다 얻었다고 할 수 없고, 현재에도 온전히 이루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 좋은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과 이후 예수님을 더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바울은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며 칭찬받을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려야 할 지난 일들(잘못한 것과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바울은 14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며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 사업체를 통해 예수님을 섬기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뜻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주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며 증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